

축산과장에 申洵雨씨 발령



신임 申洵雨 축산과장

농수산부는 지난 4월 11일 축산과장에 申洵雨씨를 발령했다.

신임 申洵雨 축산과장은 1969년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70년 3월 농수산부에 첫 발을 들여 놓은 후 종합계획담당관, 농업개발국 개발기획과장, 특작과장, 농정국 가격관리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이번에 축산과장에 발탁된 것이다.

신임 申洵雨 축산과장은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행정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申 과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인 조은영 여사와의 사이에 3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독서이다.

한편 전임 조태호 과장은 농수산부 감사관으로 승진했다.

Pig International 편집국장 Peter Best씨 본회 내방
체한중 한국 양돈산업 현황 취재



Peter Best 편집국장

영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양돈잡지인 「Pig International」의 편집국장인 Peter Best씨(40세)가 지난 4월 16일 본회를 방문, 한백용 전무와 한국의 양돈산업 현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의 양돈산업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4월 15일 내한한 Peter Best씨는 한 전무에게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현황, 검정 상황, 가격 현황, 종돈 수출입, 돈육 수출입, 종돈개량, 유통과정 등을 자세히 묻는 한편, 영국의 양돈산업 현황

에 관해 한 전무에게 설명했다.

Peter Best씨는 이 밖에도 20일까지 6 일동안 ▷ 선진원종 ▷(주) 제일종축 ▷코델리 ▷(주) 선진축산사료사업부 ▷ 종돈능력검정소 ▷(주) 제일제당 육가공공장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사육기술현황, 사료산업, 육가공 분야, 종돈개량 현황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Peter Best씨는 4월18일 전동용 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양돈산업 현황과 당면문제, 발전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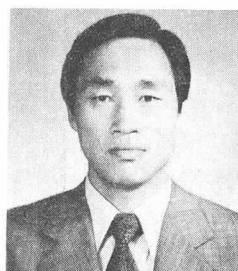
한편 Peter Best씨는 영국의 양돈산업 현황에도 언급, 영국은 돈육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돈육을 조금만 더 생산해도 가격이 하락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또한 Peter Best씨는 「한국이나 영국이나 양돈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최대로 낮추면서 양질의 돈육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eter Best씨는 월간 Pig International誌에서 「Talking Pork」라는 고정 칼럼란을 집필하고 있다.

농수산부 이수현 계장 일본 연수교육 마치고 귀국

— 4 개월동안 일본 축산정책 두루 파악 —



이
수
현
계
장

농수산부 축산과 이수현 계장(중소가축계)이 4개월간의 일본 연수교육을 마치고 지난 4월

8일 귀국했다.

총무처의 공무원 해외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일본의 가축개량, 축산물 유통, 수급 및 가격안정, 축산경영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12월 10일 출국했던 이수현 계장은 일본의 ▷ 축산시험장 ▷ 축산국 식육·계란과 ▷ 4개 종축목장 ▷ 축산국 가축 생산과, 축산경영과 ▷ 가축시장 ▷ 식육시장 ▷ 식육유통센타 등에서 4개월간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 계장은 위의 장소에서 ▷ 수정란 이식과 동결 수정란 이식(소·돼지·면양) ▷ 육종정책 ▷ 종축의 선발 ▷ 수정란 분할 이식 ▷ 돼지의 계통조성 ▷ 산육 능력검정 ▷ 가성광견병 검사 방법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이수현 계장은 일본의 축산 현황에 대해 「일본은 17개의 종축장을 운영하면서 가축개량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축산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육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등 전분야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수현 계장은 「일본은 지육경매시 육질을 판정해 주는 등급사가 있어서 등급사가 고기질에 따라 등급을 매겨주면, 경매사는 중량, 검사 등급 결과만을 불러주게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경매사의 농간을 막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도입·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특히 「일본은 자국산 축산물의 확보를 곧 안보와 연결시켜 국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해 놀랐다」고 밝히기도

가축 살처분 보상금 인상조정

농수산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을 조정,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의 척가에 80%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번에 조정된 평가액은 이유자돈 3만 6천원, 육성돈(31~60kg) 7만 8천원, 성돈(61~1백kg) 13만 1천원, 1백kg이 상은 체중 kg당 1천 3백 5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유우는 송아지 분유떼기 56만 6천원, 수정단계 1백 16만원 등이며 육우는 3개월령미만 송아지(암) 25만 2천원, 3개월령이상 2백kg(암) 42만 4천원, 5백 1kg이상(암)은 체중kg당 2천 2백 77원 등이다.

축산 4단체장, 축산국장 초청 간담회

전동용 본회 회장, 송찬원 종축개량협회장, 유윤수 낙농육우협회장, 정태원 양계협회장 등 축산 4단체장은 지난 4월 15일 오전 7시 김광희 축산국장을 초청, 상견례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회 한백용 전무는 ▷돼지의 유통상의 문제점(도축장의 생축계류, 해체경매과정 부조리, 부산물 문제) ▷사료곡물 도입시의 부과세, 관세 부과 문제 ▷자조금 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밖에 각 단체장들은 ▷종축개량 ▷소값 안정 ▷육류소비 촉진문제 등 축산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광희 축산국장은 「축산업 발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순우 축산과장 ▷조진형 본회 부회장 ▷한백용 본회 전무 ▷박신호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 전무 ▷황인옥 양계협회 전무 등이 배석했다.

사료회사, 작년 사료검사 위배로 과징금 5천 5백 17여만원 납부

(주)퓨리나코리아 부산공장, 위배건수 6회로 가장 많은 위배사료 제조

작년 한해동안 각 시·도에서 등록 성분대로 사료를 제조치 않은 사료공장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5,173,5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에서 총 7,443건의 사료(배합사료: 6,006건, 단미사료: 1,437건)를 검사한 결과, 이 중 2.7%에 해당하는 200건이 등록 성분대로 사료를 제조치 않아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배건수 200건이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경고 또는 과징금부과 162건, 제조정지 15건, 영업정지 5건, 기타 18건으로 이 중 97건에 대해 과징금 55,173,500원이 부과되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은 4,757,500원이고 경기 12,870,000원, 인천 12,214,000원의 순이며 대구, 충북, 전북, 제주는 과징금을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축종별 위배율은 낙농용이 2%(22건)로 가장 높았고 양돈용 1.2%(23건), 양계용 1%(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위배성분별 내역을 보면 조단백 부족이 68%로 가장 높았고 조회분초과 20%, 기타 12%로 나타났다.

한편 배합사료 제조공장중 (주)퓨리나코리아 부산공장이 위배건수 6회로 가장 많은 위배사료를 제조했고, 고려특수사료는 검사건수 3회 중 1회(33.3%)가 위배사료로 판정돼 위배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제네랄 무역으로 5회 검사중 1회(20%)가 위배사료로 판정됐다.

축종별 사료검사 결과와 위배성분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축종별 배합사료 검사실적
(85년도)

구 분	축 종 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검 사 건 수	1,959	1,981	1,119	846	101	6,006	
(축 종 별 비 율)	33	33	18	14	2	100	
위 배 건 수	20	23	22	3	6	74	
위 배 율 (%)	1	1.2	2	0.4	5.9	1.2	

표 2. 배합사료 위배성분별 내역
(85년도)

구분	성분별	조단백부족	조회분초과	CP부족	P부족	기타	계
위 배 건 수		52	16			9	77
비 율 (%)		68	20			12	100

* 3 개업체 2 항목 위배

종돈 2백54두 수입추천

냉동정액도 5백 48스트로

농수산부는 3, 4월중 활천농장 등 4개 농장에 미국산 종돈 2백54두의 수입을 추천했다.

또한 코리아 화암외 3개 농장에 냉동정액 5백 48스트로도 수입 추천했다.

자세한 수입추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종돈 및 냉동정액 수입추천 상황

추 천 번 호	실 수 요 자	품 종	추 천 량			금 액	원산지
			암	수	계		
86-5-13	활 천 농 장 (이 대 호)	H	5	2	7	\$ 10,450	미국
85-5-22-3 (변 경)	제 일 제 당 (손 영 회)	D·H	7	13	20	48,072 (CIF)	미국
86-5-12	해 대 제 과 (김 남 형)	D.Y.L	33	7	40	54,150	미국
86-5-15	축 협 중 양 회 (이 득 롱)	L·H D·Y	170	17	187	154,055	미국
86-4-8	코 리 아 화 암 (박 민 철)	D·H L·Y	스트로		200	8,680	미국
86-4-10	한농장(한상구) 외 3개소	D·H L·Y	스트로		348	13,590	미국

일본 돼지 안정기준가격 인하

일본 축산진흥심의회는 지난 3월 28일 '86년도의 돼지 안정기준 가격을 540¥ / 지육kg으로 60¥ 인하하고 안정상위가격을 760¥ / 지육kg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85년도 일본의 돼지 안정기준가격은 600¥ / 지육kg이었으며 안정상위가격은 780¥ / 지육kg 이었다.

위의 가격은 돈피를 제외한 가격이다.

'85년도 세계 돈육 생산량 '84년보다 4.6% 증가

미국 농무성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5년도 세계 돈육 생산량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5,396만 톤으로서 이는 77~81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4,459만 톤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세계주요국의 돈육생산량(1984~1985)

(단위 : 1,000톤, %)

국 별	1984	1985*	증감율
미 국	6,719	6,715	△ 0.1
덴 마크	1,040	1,093	5.1
프 랑 스	1,625	1,609	△ 1.0
서 독	2,735	2,755	0.7
이 태 리	1,098	1,090	△ 0.7
네 브 란 드	1,258	1,340	6.5
스 페 인	1,181	1,185	0.3
동 독	1,210	1,252	3.5
헝 가 리	1,168	1,091	△ 6.6
풀 란 드	1,288	1,444	12.1
중 공	14,447	16,508	14.3
대 만	732	820	12.0
일 본	1,424	1,531	7.5
기 타	15,677	15,522	△ 1.0
계	51,602	53,955	4.6

* 잠정치

우유 관련식품 요리강습 및 시식 · 전시회 개최

축산시보 주최로 플라자 호텔서 열려

제1회 우유 관련식품 요리강습 및 시식·전시회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국내 유가공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주부, 영양사,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축산시보(회장: 전동룡) 주최, 한국식생활개발 연구회(회장: 왕준련)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강습회는 지금까지 우유를 「마시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소비패턴을 먹는 「우유식품」으로 인식을 제고시켜 국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주부들의 관심을 끌었다.

위배사료에 행정처분

부산직할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상남도에서는

표. 위배사료현황

공장명	사료명	성분등록번호	제조일	검사일	검사기관	검사장소	위배성분	허용기준	검사치		과부족		파징금처분	
									1차	2차	1차	2차	일산능력	파징금
고려사료	어분(1급)	3-1	86.1.12	86.1.21	인천직할시	천호 통산	토사	2% 이하	2.71	2.63	초과 0.6	초과 0.5	16톤	160천원
고려원양 (경양호)	어분(중)	12-1	85 10. 23	85 12. 19	경상남도	동서 농산 분	조회	28% 이하	28.54	28.41	초과 0.2	초과 0.1	6톤	30천원
일성산업	어분(1)	16-1	85 12.7	85 12.18	경기도	양주 축협	조회 분	23% 이하	24.39	24.40	초과 1.0	초과 1.0		40천원
중앙산업	어분(3)	14-3	86 1.17	86 1.21	인천직할시	제일 제당	토사	2.0% 이하	2.39	2.35	초과 0.3	초과 0.2		120천원
한국특수 사료(단 미사료)	인산염 및 칼슘염류			85 12. 14	인천직할시	안양 축협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일자 미표시					60톤	3백 60만원	

3월말 현재 돼지두수 2백87만여두

전년 동월보다 11.3% 증가

사육호수는 오히려 줄어

농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2백 87만 3천 2백 29두로 지난해 말보다 0.7%, 전년 동월에 비해 11.3% 늘었다.

그러나 돼지 사육농가는 22만 5천 5백 1호로 지난 연말에 비해 11.4%, 전년 3월에 비해 28.9% 가 감소했다.

돼지 사육두수 및 호수

연월\구분	사육두수(두)	사육호수(호)
86. 3	2, 873, 229	225, 501
85. 12	2, 852, 799	251, 196
85. 3	2, 841, 078	316, 965

'85년도 4/4분기 및 '86년도 1/4분기 사료검사 결과 등록성분대로 제조하지 않은 사료회사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했다.